

관세청, 「개청 제56주년 기념식」 개최

- 이종욱 관세청장, “마약 밀수 차단, 경제범죄 척결, 수출·물가안정 지원, 인공지능(AI) 혁신, 조직문화 개선” 5대 핵심 과제 제시

□ 관세청은 개청 56주년(8월 27일, ㉞)을 맞아 8월 27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.

※ 1970. 8. 27.,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'관세청' 출범 [「정부조직법」(법률 제2210호)]

- 이번 기념식에는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,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8명, 청장표창 2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.

□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난 56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국민안전을 뒷받침해 온 관세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,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.

□ 첫째,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촘촘한 국경 방어망 구축을 강조했다.

- 마약 반입경로별 N차 감시적발체계를 고도화하고, 첨단 검색장비·검사시설, 국제공조 및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마약 밀수의 국경단계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.

□ 둘째, 무역과 외환거래에 기반한 경제범죄를 척결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을 역설했다.

- 무역·외환을 악용한 재정·금융범죄에 대한 상시 수사단속 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본청 및 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, 사기횡령·자금세탁, 허위공시 등에 대한 세관 수사권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.

- 또한, 산업기술 유출·불법 우회수출 및 원산지 위반 등 원산지 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 제조업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입-유통-수출 전 과정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.
- 셋째, 수출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중심 관세행정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.
 -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·영세기업과 개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‘모두의 수출’ 생태계를 조성하고, 지역별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고,
 - 동시에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할당관세 악용,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, 관세조사 등 가용한 모든 단속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.
- 넷째, 인공지능(AI)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 - 올해 하반기에 완료되는 인공지능(AI) 정보화전략계획(ISP) 결과를 토대로 관세행정 전 분야에 인공지능(AI)을 접목하고, 현장 중심의 자생적인 인공지능(AI) 개발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주길 당부했다.
- 마지막으로, 세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세관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 의식을 계승하고,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며,
 - 1878년 설치된 두모진 해관에서 비롯된 관세행정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세관 역사 연구·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, 상호신뢰와 존중, 합리적 소통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자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.

별첨 : 「관세청 개청 56주년」 기념사

담당 부서	운영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현석 (042-481-7620)
		담당자	사무관	최재원 (042-481-7621)